

가토 시로 사에몬 가게마사의 업적

가토 시로 사에몬 가게마사(통칭: 도시로/호: 순케이)는 기록에 의하면 1223년에 중국으로 건너가 도자기 기법을 배운 후 귀국했습니다. 그 후, 도자기 제작에 적합한 흙을 찾아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던 중 1242년에 세토에서 좋은 흙을 발견하고 세토 도자기의 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도시로가 도소라고 불리고 세토에서 칭송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매년 4월 셋째 일요일과 그 전날에는 도시로의 위업을 기리는 "세토 도소 축제"가 개최됩니다.

도소로 불리는 도시로와 관련된 자료와 전기는 많이 남아 있는데 대부분 도시로가 생존했던 시대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후인 에도시대(1603~1868)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실존했던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에 싸여 있습니다.

- 1748년 도시로와 관련된 최초의 전기가 작성됨
- 1752년 500주기 법요
- 1824년 스에히코샤 창건
- 1850년 위패가 호센지에 모셔짐
- 1855년 도소 650주년 축제
- 1905년 쇼고위 추증
- 1910년 순케이옹 700주년 축제
- 1925년 현재 스에히코샤 건조
- 1927년 에이헤이지로부터 인덴고의 계명이 추증
- 1952년 도소 700기제사
- 2012년~2015년 도소 800주년 축제

도소 연혁



도소 800주년 축제

세토에서 거국적으로 성대하게 열린 "순케이옹 700주년 축제"로부터 100년이 경과되고, 2012년부터 2014년에 "도소 800주년 축제"로서 다양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로고 마크 · 마스크트 캐릭터

도소 800주년 축제를 상징하는 로고 마크와 마스크트를 제작했습니다. 마스크트 캐릭터 "도시로군"은 지금도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토 · 도시로 트리엔날레

세토의 흙을 "직접 채집하여", "직접 점토를 만들고", "직접 제작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이후 3년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롯데쿠키의 내부 조사

구전에 따르면 롯데쿠키 내부에는 건설에 힘쓴 가토 가게마사의 딸이 자갈 하나에 한 글자씩 기록한 법화경 "일자일석경"이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롯데쿠키가 완성된 후 약 150년이 지나 2013년에 도소 800주년 축제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상부의 덮개를 열어 내부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알게 된 것은,

1 문자 서체를 통해 한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닌 여러 사람에 의해 쓰여져 있었다는 것.



2 돌 하나에 한 글자가 아닌 여러 글자가 쓰여진 것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 최대 돌 하나에 20글자나 되는 것도 있었다는 것.



조사를 통해 글자 수를 계산해 보면 약 74,000자이며, 법화경 경전 한 세트분(69,384자)은 지금도 롯데쿠키 내부에 보관되어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